루소의 《에밀》

교육론을 넘어선, 자연 종교와 성선설에 대한 철학서

글_표정훈

《에밀》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중현 옮김
한길사
888쪽
값 35,000원

부제목이 〈교육에 대하여〉로 되어 있는 장 자크 루소의 《에밀》(1762)은 에밀이라는 고아가 요람에서부터 자라나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할 때까지, 이상적인 가정교사의 지도 아래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가족이나 사회 같은 외적 환경이 미치는 나쁜 영향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여, 타고난 천성을 자유롭게 키워나가는 것이 루소의 이 교육론의 핵심이다. 루소는 첫 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창조자의 수중에서 나올 때는 선한데 인간의 수중에서 모두 타락한다. 인간은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보기 흉하게 만들며, 기형과 괴물을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 하나 자연이 만든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인간에 대해서까지도. 조련된 말처럼 자신들을 위해 인간을 훈련시켜야 하며, 그들 정원의 수목들처럼 그들의 기호에 따라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

루소는 유아를 포대기를 사용해 키우는 것에 반대하고,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를 더 이상 어른을 기준으로 하여 이해하지 않고 어른과는 차이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어린이의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기 위해 오랜 기간의 관찰을 중시했다. 미완성의 과도기로 간주되던 유아기를 그 나름대로 완성된 삶의 형태로 본 것이다. 또한 어린이에게는 도덕관념이나 진리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책이나 언어에 의한 교육,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충고한다. 주입식으로 지식을 암기하는 데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종의 전인 교육을 지향했던 것이다.

1762년 5월부터 《에밀》이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6월 3일부터 《에밀》은 모두 압수되었다. 《에밀》을 출간한 출판업자는 루소에게 편지를 보내 "경찰에 체포되어 책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는 6월 9일에 《에밀》을 압수하여 불태우도록 경찰에 명령했고, 루소는 바로 그날 고향인 제네바를 향해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도 《에밀》은 불온한 책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9월에는 파리 주교 크리스토프 드 보몽이 교서를 발표하여 《에밀》을 맹비난했다. 11월에는 소르본 대학 신학부도 《에밀》을 비난하는 문서를 내놓았다.

《에밀》이 국회, 교회, 학계의 전면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공공 교육 기관을 불신하는 내용과 프랑스 아카데미를 비판하는 내용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4부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가賣文家'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 《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 《책은 나름의 운명을 지닌다》 《탐서주의자의 책》 《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 《고대문명의 환경사》 《진영첩의 주자강의》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도덕과 종교 교육: 15-20살까지〉에 포함돼 있는 '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 이었다. 이 글에서 루소는 사부아 보좌신부의 입을 빌려 신을 영원하고 보편적인 질서를 만든 창조자로 인정하면서도, 만물의 주관자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신의 섭리나 은총이나 계시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부아 보좌신부의, 아니 루소의 말을 들어보자.

"종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는 필연코 가장 명쾌한 종교일 걸세. 내게 설교하는 자신의 신앙을 신비와 모순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로 하여금 그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지. 내가 숭배하는 신은 전혀 그런 어둠의 신이 아니라네. 그는 내게 오성을 주면서, 사용하지 말라고 주지는 않았네. 나에게 내 이성을 복종시키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이성을 준 자를 모욕하는 일일세. 진리의 집행자는 나의 이성을 전혀 압제하지 않지."

루소는 이렇게 인간의 자연적 이성이나 통찰에만 바탕을 둔 종교, 즉 자연 종교를 주장했다. 계몽주의 시대 자연 종교의 특징은 권위주의적이고 제도적인 기성 종교에 대해 비판적이며, 계시가 아닌 자연, 또는 이성에 의한 진리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자연 종교에서 기적은 부정된다. 신이 있다면 신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신이며, 그런 신이 자연 안에 기적과 같은 비합리적 사건을 일으킬 리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종교는 이신론(理神論)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도 하다. 이신론은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구실을 약화시키고 신앙의 내용을 이성적인 진리에 국한시키려는 입장이다. 신은 세계를 창조한 뒤부터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다만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세계에 부여한 법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이다. 신은 자연 법칙을 부여한 존재(law giver)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연 법칙을 알아나가는 것은 신의 뜻, 신의 창조의 비밀을 알아나가는 것과 같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신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루소의 다른 말을 들어보자.

"나는 각각의 모든 종교가 다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각국에서 공개적인 의식을 통해 신을 존경하는 어떤 한결같은 방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기후와 통치 형태와 국민성, 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떤 한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지역적인 원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일세. 신에게 어울리게 신을 섬긴다면, 나는 그 모든 종교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네."

루소는 반(反) 기독교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종교 다원론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기독교만이 유일무이의 참된 종교이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당시 유럽의 주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루소의 이런 생각을 당시 교회와 국가가 불온하다고 지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에밀》은 단순히 교육론이라기보다 루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 즉 "인간은 자연적으로 선하다"는 철학적 입장을 전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선설(性善說)이 기독교의 원죄론(原罪論)과 상반되는 입장임은 물론이다.

루소는 스위스 베른 근처에 숨어 살면서 비난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1763년 3월에 《크리스토프 드 보몽에게 보낸 편지》를 출간하여 자신에 대해 가해진 비난을 반박했다. 모든 사람이 《에밀》을 비난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에밀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루소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일이 많았고, 《에밀》로 인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교육 관련 서적의 출판이 늘어나기도 했으며, 《에밀》의 영향을 받은 문인들도 늘어났다. 스위스와 영국 등지를 전전하며 살다가 파리로 돌아와 정착해 살던 루소는 1778년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11년 뒤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으로 루소와 《에밀》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루소의 자유민권 사상이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의 사상적 근간이 됨으로써, 루소의 유해는 프랑스의 위인들을 모시는 파리의 성당 팡테옹으로 옮겨졌다.

《에밀》의 영향력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철학자 칸트가 《에밀》을 읽다가 산책 시간마저 잃어버린 것은 유명한 일화다. 괴테도 "호주머니에는 늘 호메로스를, 머리에는 늘 《에밀》에 대한 기억이 담겨져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에밀》의 애독자였다. 자신의 아이에게 에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부자들이 많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에밀처럼 직업적 기술을 배우려는 청년들도 늘어났다. 교육 사상사에서 유명한 페스탈로치는 루소와 《에밀》을 신봉한 나머지, 루소가 피신해 살던 이베르동에 학교를 세웠다. 페스탈로치는 아이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여러 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을 교육의 이상으로 삼았으니, 《에밀》이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